

환자의 임종간호 관찰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 비교

서연희^{1,*} · 이현주^{2,†}

¹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우석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020년 10월 4일 접수: 2020년 10월 4일 수정: 2020년 10월 28일 채택)

A Comparison of Awareness to Well-dy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erminal care Experience

Yon-Hee, Seo^{1,*} · Hyun Ju Lee^{2,†}

¹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²College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Received October 4, 2020; Revised October 4, 2020; Accepted October 28, 2020)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 여부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와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대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관찰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11$, $p<.003$).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r=.194$, $p=.008$)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r=.201$, $p=.006$)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웰다잉에 대한 인식($r=.189$, $p=.029$)에서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간호 관찰경험, 간호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hju@woosuk.ac.kr)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the awareness of well-dying, advance directives knowledge and attitude, according to patient's terminal care experience among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321 nursing students, selected from 3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vance directives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with experience of patient's terminal care or no experience of patient's terminal care ($t=3.011$, $p<.003$). In addition, the awareness of well-dying ($r=.194$, $p=.008$) and advance directives knowledge ($r=.201$, $p=.006$)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vance directives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with experience of patient's terminal care, whereas advance directives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wareness of well-dying ($r=.189$, $p=.029$) in nursing students with no experience of patient's terminal ca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and awareness of well-dying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Awareness of well-dying, Advance directives, Terminal care experience,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핵가족화와 고령화는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닐 정도로 현실화된 이슈이며,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죽음의 질에 대한 논의와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가족의 형태는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확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전통적 기능이 축소되었고 임종 준비 또한 가정이 아닌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2018년 우리나라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29만 8천 9백 명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는 전체 사망자의 76.2%를 차지하며 이는 국민 10만명 당 약 8명이 병원에서 사망한다는 의미이며, 1990년 13.8%, 2010년 67.6%와 2016년 74.9%와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 이처럼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사망 과정에 의료인들이 기존보다 더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생존 시 환자의 삶의 질(quality)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죽음에 질(qua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생애말기돌봄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죽음, 즉 웰다잉(well-dying)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사회 문화적 상황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1]. 서양 문화에서의 좋은 죽음은 품위 있는 죽음으로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 신체적 안위, 자율성, 의미 있는 죽음뿐만 아니라 준비된 죽음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었을 때 좋은 죽음으로 정의하였다[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호상'이라는 용어가 웰다잉의 의미를 나타냈고, 선행연구[4]에서는 '복 있는 죽음'으로 7개 요소를 제시하여 웰다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 주는 모습은 상이하지만, 최근 다학제간 측면에서의 웰다잉이란, '적절한 준비', '증상의 조절',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지'와 '영적 안녕'의 요소로 정의되며[5] 임종기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하지 않고 존엄성과 편안함을 가지는 것을 웰다잉으로 보고 있다[6].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와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성을 최우선시하고 삶의 질(quality)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

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결정하여 작성하는 문서로[7], 죽음의 질(quality)을 확보하는 웰다잉의 의미에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가 도입되었다[8].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가치관이나 관련 지식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충분한 정보제공[9]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중 특히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10]. 즉, 간호사가 먼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한 무익한 연명치료 중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1].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의 특성상 대학시기가 삶과 죽음의 의미가 확립될 수 있는 시기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죽음을 내·외부적 혼란으로 경험할 수 있다[12]. 또한 간호대학생의 86.2%가 임상실습 동안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13]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임종간호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를 통해 죽음에 대한 무서움,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를 받는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웰다잉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생명의료윤리의식,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15],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비교[16], 웰다잉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8] 등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통해 죽음, 즉 임종간호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안하였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 정도를 비교하

여 확인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자율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quality) 향상을 존중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임종간호 관찰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지식 및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지식 및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임상실습 중 환자의 임종간호 관찰경험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3, 4학년 중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를 자의적으로 동의한 학생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321부(임종간호 관찰경험 있음 187부, 임종간호 관찰경험 없음 134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wo independent group test를 위한 대상자수를 유의수준(α) .05, 검정력(β) .8, 효과크기는 중간 크기인 .3으로 가정한 경우 총 대상자수는 278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자 수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웰다잉(좋은 죽음) 인식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Schwarz 등이 개발한 도

구[17]를 Jeong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18]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밀감 9개 문항, 통제감 3개 문항, 임상증상 5개 문항으로 총 3개의 하부영역으로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중요하다' 4점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까지 총점이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Jeong의 연구[18]에서 Cronbach's α 는 .8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2.3.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Hong과 Kim이 개발하고[19], 2018년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을 토대로 Seo가 수정·보완한 도구[7]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예', '아니오', '모른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답'과 '모른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19]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Seo[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3이었다.

2.3.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Nolan과 Bruder(1997)가 개발[20]하고 2003년에 개정한 Advance Directive Attitude Survey(ADAS)를 Lee가 번역한 도구[21]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치료선택의 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 질병 인식에 대한 항목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7, 9, 16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20] Cronbach's α 는 .74였고, Lee의 연구[21]에서 Cronbach's α 는 .7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

험 여부에 따라 일반적 특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는 t-test 또는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58.3%가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었고, 41.7%가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었다.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남녀의 비율은 각각 27.3%, 72.7%였으며, 3학년 학생들이 29.4%, 4학년 학생들이 70.6%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다'가 55.6%,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48.1%, 가정의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79.7%로 가장 높았다. 또한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학생이 63.1%이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다'가 69%이었다.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남녀의 비율은 각각 27.6%, 72.4%였으며, 3학년 학생들이 62.7%, 4학년 학생들이 37.3%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다'가 56%,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와 '보통이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47%, 가정의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86.6%로 가장 높았다.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학생이 52.2%이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다'가 50.7% 이었다(Table 1).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과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년, 호스피스교육 유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학년은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군에서 4학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chi^2=35.20, p<.001$),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과($\chi^2=7.48, p=.00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chi^2=12.74, p<.001$)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21)

Variables	Category	Experienced	Unexperienced	Total	χ^2	p
		(n=187) n(%)	(n=134) n(%)			
Gender	Female	136(72.7)	97(72.4)	233(72.6)	.01	.946
	Male	51(27.3)	37(27.6)	88(27.4)		
Grade	Third	55(29.4)	84(62.7)	139(43.3)	35.20	<.001
	Fourth	132(70.6)	50(37.3)	182(56.7)		
Religion	Yes	83(44.4)	59(44.0)	142(44.2)	1.14	.766
	No	104(55.6)	75(56.0)	179(55.8)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90(48.1)	63(47.0)	153(47.7)	.96	.620
	Moderate	81(43.3)	63(47.0)	144(44.9)		
	Bad	16(8.6)	8(6.0)	24(7.5)		
Economic status	High	21(11.2)	8(6.0)	29(9.0)	3.09	.214
	Middle	149(79.7)	116(86.6)	265(82.6)		
	Low	17(9.1)	10(7.5)	27(8.4)		
Experience with hospice education	Yes	118(63.1)	64(47.8)	182(56.7)	7.48	.006
	No	69(36.9)	70(52.2)	139(43.3)		
Intention toward AD	Yes	129(69.0)	66(49.3)	195(60.7)	12.74	<.001
	No	58(31.0)	68(50.7)	126(39.3)		

Table 2. Comparison of Awareness of Well-dying, AD Knowledge, AD Attitudes according to Terminal Care Experience (N=321)

Variables	Experienced	Unexperienced	t	p
	(n=187) M±SD	(n=134) M±SD		
Awareness of well-dying	3.04±0.45	3.06±0.37	-0.44	.659
Sense of closeness	3.29±0.43	3.26±0.43	.69	.489
Personal control	2.84±0.65	3.00±0.59	-2.24	.026
Clinical signs	2.97±0.71	2.90±0.41	.92	.358
AD Knowledge	9.38±1.93	9.25±1.94	.61	.543
AD Attitudes	2.76±0.34	2.64±0.28	3.01	.003
Opportunity for treatment choices	2.97±0.39	2.88±0.36	2.15	.033
Effect of advance directives on the family	3.03±0.39	2.92±0.31	2.84	.005
Effect of advance directives on treatment	3.23±0.49	3.07±0.42	3.14	.002
Perception of illness	1.80±0.82	1.73±0.75	.79	.430

AD=advance directives

3.2. 임종간호 관찰경험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04 ± 0.45 점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평균 3.06 ± 0.37 점과 유사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하부영역 중 '통제감'에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2.84 ± 0.65 점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3.0 ± 0.59 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t = -2.24, p = .02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9.38 ± 1.93 점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9.25 ± 1.94 점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는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2.76 ± 0.34 점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2.64 ± 0.28 점보다 높았으며, 하부영역에서도 '질병인식'을 제외하고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 for all $< .05$)(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 비교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F = 5.35, p = .006$)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t = 2.91, p = .004$)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높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 정도가 높았다.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호스피스교육 유무($t = 2.09, p = .038$)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t = 2.05, p = .043$)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t = 2.54, p = .012$)에 차이가 있었다. 즉, 호스피스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웰다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태도 정도가 높았다(Table 3).

3.4.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간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웰다잉에 대한 인식($r = .194, p = .008$)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r = .201, p = .006$)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에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웰다잉에 대한 인식($r = .189, p = .029$)에서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 여부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3.04 ± 0.45 점(4점 만점)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평균점수 3.06 ± 0.37 점(4점 만점)과 유사하게 나타나 임종간호 관찰경험과 관계없이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2] 결과(3.15 ± 0.36 점)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선행연구[23]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평균점수 3.05 ± 0.38 점, 일반대학생의 평균점수 2.73 ± 0.51 점이었으며,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의 결과 2.44 ± 0.31 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임종을 직접 경험해보거나 죽음과 관련된 교육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25]하는 반면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특성으로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직·간접적으로 더 자주 노출될 뿐 아니라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호스피스나 웰다잉 등의 교육 경험이 좋은 죽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웰다잉에

Table 3. Awareness of Well-dying, AD Knowledge, AD Attitud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1)

Variables	Category	Awareness of Well-dying						AD Knowledge						AD Attitudes					
		Experienced (n=187)		Unexperienced (n=134)		Experienced (n=187)		Unexperienced (n=134)		Experienced (n=187)		Unexperienced (n=134)		Experienced (n=187)		Unexperienced (n=134)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Gender	Female	3.03±0.41	-.37 (.713)	3.05±0.37	-.28 (.821)	9.35±1.98	-.39 (.695)	9.29±1.89	.41 (.684)	2.79±0.33	1.93 (.056)	2.63±0.27	-1.17 (.243)						
	Male	3.06±0.55	-.02 (.982)	3.07±0.39	.20 (.840)	9.47±1.81	-.65 (.519)	9.14±2.11	-.21 (.833)	2.68±0.36	-.36 (.719)	2.69±0.33	.75 (.456)						
Grade	Third	3.04±0.54	.49 (.621)	3.06±0.39	.39 (.691)	8.98±2.38	-.65 (.519)	9.27±1.95	-.12 (.264)	2.70±0.33	.36 (.719)	2.66±0.32	-.42 (.673)						
	Fourth	3.04±0.40	.28 (.756)	3.05±0.34	.49 (.613)	9.55±1.69	3.16±0.29	9.20±1.69	.49 (.522)	2.78±0.35	2.08 (.128)	2.63±0.22	1.37 (.259)						
Religion	Yes	3.06±0.56	1.21 (.302)	3.07±0.37	1.58 (.211)	9.48±2.00	a>b	9.03±2.10	1.03 (.361)	2.77±0.34	1.82 (.165)	2.64±0.29	1.63 (.201)						
	No	3.02±0.39	-.53 (.597)	3.05±0.37	2.09 (.038)	9.30±1.87	.43 (.653)	9.41±1.81	-.68 (.492)	2.75±0.35	1.91 (.058)	2.66±0.28	.10 (.920)						
	Good ^a	3.03±0.41	1.49 (.136)	3.07±0.37	.17 (.865)	9.83±1.66	1.65 (.103)	9.43±1.92	2.05 (.043)	2.78±0.39	2.91 (.004)	2.66±0.31	2.54 (.012)						
Perceived health status	Moderate ^b	3.06±0.45	2.89±0.59	3.03±0.38	3.15±0.39	8.89±2.12	1.83 (.069)	9.13±1.84	1.83 (.069)	2.71±0.24	2.62±0.25	2.62±0.25	2.79±0.28						
	Bad ^c	2.98±0.16	3.02±0.39	3.16±0.29	3.13±0.35	9.31±1.85	1.58 (.211)	8.75±2.92	1.03 (.361)	2.88±0.44	1.82 (.165)	2.79±0.28	2.69±0.31						
Economic status	High ^a	3.00±0.42	3.06±0.43	2.85±0.51	3.06±0.36	9.48±1.66	1.58 (.211)	9.38±1.85	1.03 (.361)	2.83±0.34	1.82 (.165)	2.81±0.21	1.63 (.201)						
	Middle ^b	3.06±0.43	2.89±0.59	3.06±0.36	3.15±0.39	9.32±1.96	1.58 (.211)	9.31±1.85	1.03 (.361)	2.76±0.35	1.82 (.165)	2.63±0.28	2.69±0.31						
Experience with hospice education	Yes	3.02±0.39	3.02±0.39	3.13±0.35	3.13±0.35	9.58±1.76	1.83 (.069)	9.13±2.17	1.83 (.069)	2.65±0.31	1.91 (.058)	2.65±0.31	2.65±0.31						
	No	3.06±0.54	3.07±0.49	2.99±0.38	3.06±0.34	9.04±2.17	1.65 (.103)	9.36±1.71	2.05 (.043)	2.64±0.26	2.91 (.004)	2.64±0.26	2.64±0.26						
Intention toward AD	Yes	3.07±0.49	2.97±0.39	3.06±0.34	3.05±0.39	9.56±1.65	1.65 (.103)	9.59±1.77	2.05 (.043)	2.80±0.32	2.91 (.004)	2.71±0.28	2.54 (.012)						
	No	2.97±0.39	3.07±0.49	3.05±0.39	3.05±0.39	8.98±2.41	1.65 (.103)	8.91±2.06	2.05 (.043)	2.65±0.37	2.91 (.004)	2.59±0.27	2.54 (.012)						

AD=advance directives

Table 4. Correlations among Awareness of Well-dying, AD Knowledge, AD Attitudes (N=321)

Variables	Experienced		Unexperienced	
	AD Knowledge (r/p)	AD Attitudes (r/p)	AD Knowledge (r/p)	AD Attitudes (r/p)
Awareness of Well-dying	.068(.356)	.194(.008)	.138(.112)	.189(.029)
AD Knowledge	1	.201(.006)	1	.057(.515)
AD Attitudes		1		1

AD=advance directives

대한 인식의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통제감’은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학생이(2.84±0.65점)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학생(3.0±0.56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웰다잉에 대한 인식에서 통제감은 대상자가 임종 시까지 의식을 유지하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죽음을 자주 직면하는 노인병원 간호사들[1]의 연구(2.77±0.33점)와 중환자실 간호사들[26]의 연구(2.76±0.58점)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임종간호를 관찰하며 직·간접 경험해 본 결과 통제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총점 12점 중 9.38±1.93점(정답률 78.2%)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9.25±1.94점(정답률 77.1%)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아 임종경험 여부에 따라 지식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선행연구[27]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실제 임상실습을 참여하고 있는 간호대학 3, 4학년으로 임상실습 중 환자의 임종간호 현장을 직접 관찰한 경험 여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수준을 측정한 반면, 선행연구[27]의 경우 간호학과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가족의 임종을 지켜본 경험 여부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을 측정했다는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는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2.76±0.34점으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2.64±0.28점 보다 높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27]결과를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약 71%가 졸업을 앞둔 4학년인 반면에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약 37%만 4학년으로 학년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태도, 죽음에 대한 불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28], 임종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전문직관이 확고히 정립될수록 임종간호 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 등이 완화되어[29]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9,27]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사전의사결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사전의사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치료선택의 기회’ 요인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임종간호 관찰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선행연구[8,30]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임종 시 받을 치료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높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1]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임상에서 임종간호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상자의 임종간호 과정을 통해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여 준비된 죽음이 좋

은 죽음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14].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낮아져[32]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확한 목적을 이해하여 지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경우 호스피스 교육 경험이 웰다잉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임종경험이 없는 일반대학생들[23]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24]의 죽음 관련 교육 경험에 따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인해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33]의 맥락을 비추어 볼 때 자율적 의사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의 경우 임상실습 중 임종간호 관찰경험 유무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종간호 관찰 여부에 따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한 연구[30]에서 웰다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와는 유사하지만, 또다른 선행연구[34]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관찰경험 여부에 따른 웰다잉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과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는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종간호 관찰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높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간호학과 전제학년 또는 일반 대학생과의 비교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임상실습 중 환자 임종간호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한 조건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동일한 여건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법 제정 및 존엄사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현장 변화 속도에 맞추어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M. S. An, K. J. Lee, "Awareness of Good Death and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among Geriatric Hospital Nurses". *Korean J Hosp Palliat Care*, Vol.17, No.3 pp. 122-133, (2019).
2. Statistics Korea, Preliminary Results of Birth and Death Statistics in 2018. [cited 2020 September 27],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3. K. Proulx, C. Jacelon C, "Dying with

- Dignity: The Good Patient versus the Good Death". *Am J Hosp Palliat Care*, Vol.21, No.2 pp. 116-20, (2004).
4. M. H. Kim, K. J. Kwon, Y. O. Lim, "Study on Good Death that Korean Aged People Recognize-Blessed Dea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6, No.2 pp. 195-213, (2004).
 5. C. Granda-Cameron, A. Houldin,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in Terminally Ill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Vol.29, No.8 pp. 632-9, (2012).
 6. D. L. Min, E. H. Cho,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in the Korean Community", *J Korean Gerontol Nurs*, Vol.19, No.1 pp. 28-38, (2017).
 7. S. Y. Seo,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Advance Directives : Focused on the Home-Based Cancer Patients Registered in Community Health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2019).
 8. I. S. Jang, Y. J. Kim, "Effects of Awareness to Well-dy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vance-directives on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Rehabil Nurs*, Vol.22, No.2 pp. 104-113, (2019).
 9. K. H. Jo, Y. J. Kim, K. C. Sohn, "Types of Perception toward End-of-Life Medical Decision-making of Clinical Nurses: Q-Methodologic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5, No.1 pp. 18-29, (2012).
 10. M. Browall, C. Melin-Johansson, S. Strang, E. Danielson, I. Hénoch, "Health Care Staff's Opinions about Existential Issues among Patients with Cancer",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Vol.8, No.1 pp. 59-68, (2010).
 11. H. J. Cheon, *Nurses'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2018).
 12. E. H. Kang, M. Y. Kim, "Good Death, Self-Esteem, and Attitude to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14, No.1 pp. 1-10, (2017).
 13. Y. S. Park, J. H. Kim, "Influence of Attitude to Death and Resilience on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1 pp. 37-47, (2017).
 14. H. J. Kang, H. J. Cho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Patient Deaths during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6, No.1 pp. 56-66, (2020).
 15. K. E. Kwon, M. S. Yoo,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Dignified Death and Advance Directive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Vol.25, No.3 pp. 204-214, (2018).
 16. S. H. Kim, D. H. Kim, H. M. Son,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Korean J Hosp Palliat Care*, Vol.14, No.3 pp. 144-151, (2011).
 17. C. E. Schwartz, K. Mazor, J. Rogers, Y. Ma, G. Ree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 Palliat Med*, Vol.6, No.4 pp. 575-584, (2003).
 18. H. S. Jeong,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Catholic University, (2010).
 19. S. W. Hong, S. M. Kim,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 330-340, (2013).
 20. M. Nolan, M. Bruder, "Patients'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and End of Life Treatment Decisions", *Nursing*

- outlook, Vol.45, No.5 pp. 204-208, (1997).
21. H. L. Lee, *The Older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Advanced Directives among Senior Center participant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22. Y. H. Cho, S. R. Shu, "Awareness of the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pp. 597-607, (2017).
 23. J. Y. Yu, Y. M. Kim, M. S. Lee, "Death and Well-dying Awareness,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6 pp. 581-598, (2020).
 24. T. Y. Kil, W. H. Cho, "The Effect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the Perception of Good Death, Death Attitude and Meaning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Vol.8, No.2 pp. 37-64, (2017).
 25. M. J. Jo, W. H. Jun, "Effects of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on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2 pp. 294-303, (2015).
 26. J. H. Kang, Y. M. Lee, H. J. Lee, "Effect of the Awareness of a Good Death and Perception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n Attitudes of Intensive Care Nurses toward Terminal Care",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12, No.2 pp. 39-49, (2019).
 27. H. J. Lee, J. H. Ha, J. M. Yu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to Advance Medical Directives and Ethics Values", *J Korean Acad Nurs Adm*, Vol.25, No.4 pp. 282-291, (2019).
 28. S. A. Kwon,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s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6, No.4 pp. 284-313, (2016).
 29. H. J. Shin,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of Terminal Care on Professionalism and Good Death Awareness in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30. M. S. Kwon, J. Y. Hong,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Knowledge, Attitude for Advanced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 825-843, (2019).
 31. N. J. Park, *Factor Affecting on Completion of the Advance Directives in Old Adul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8).
 32. J. K. Park, "The Effects of Awareness of Good Death on Advance Medical Directives in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Majors", *J Ergon Soc Korea* Vol.39, No.1 pp. 87-97, (2020).
 33. S. M. Yang,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and Dignified Death Attitudes of Preliminary Elderly in case of Signing Advanced Direct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8).
 34. I. H. Kwon, *Comparison on Awareness of Good Death and Knowledge and Attitude of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in Univers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2018).